

이차전지

Sector Issue Brief

2026. 4. 1

Check Point

- 2월 xEV YoY -5.8%, MoM -8.9%
- 2월 EV향 배터리 YoY -5.1%
- 예상 하회하는 중국 EV 판매 주의

월별 EV 배터리 2월 Data

| Analyst 정경희 | khchung@ls-sec.co.kr

EV 2월 판매량, 예상 하회(중국 요인)

2월 SNE Research Global EV & Battery Monthly Tracker data에 따르면 글로벌 xEV(배터리 수요 기준 중요한 BEV, PHEV 합산 기준) 판매량 약 1.1백만대(YoY -12.6%), 1~2월 누적 기준 약 2.3백만대(YoY -7.0%)로 2월 및 1~2월 누적 기준 모두 전년비 역성장 시현

이는 중국과 미국 시장 약세에 주로 기인. 중국은 전기차 구매 취득세 감면에서 50% 면제로 정책적 지원 감소 영향. 참고로 중국 전기차(신에너지차, NEV) 구매 지원 정책으로 크게 현금 보조금(국가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있음. 국가보조금은 '22년말 종료되었으나, 세제 혜택인 취득세 감면은 현재 단계적으로 축소 중으로 2월 중국 xEV 판매 전년동월 대비 30.9% 감소. 미국은 IRA 일몰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34.5% 하락. 유럽은 19.9% 증가하였고, 기타 지역은 중국 OEM들의 해외 진출 가속화로 53.1% 증가

이는 당초 우리 전망보다 xEV 판매량 역성장이 연초이기는 하나 심화된 것. 이는 중국이 '25년 상반기 4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던 것에서 시장 성숙과 정책 보조 감소로 '26년 10%대 성장을 예상하였으나, 이를 훨씬 하회하는 30%대 역성장이 나타났기 때문. 향후 중국 시장의 xEV 판매가 1~2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당초 예상보다 '26년 글로벌 EV향 배터리 수요 성장은 위축되어 나타날 수 있음. 중국 EV의 글로벌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약 60%)

2월 배터리 YoY -5.1%, 1~2월 누적 기준 +4.4%, 확연히 둔화된 EV향 배터리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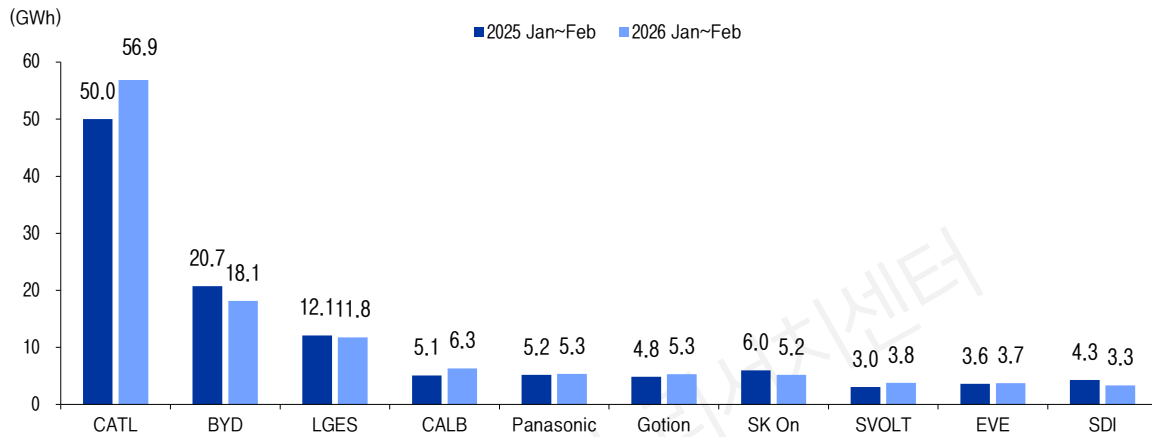
2월 글로벌 배터리 인도량은 60.3GWh로 2월의 63.5GWh 대비 5.1% 감소. 그러나 1~2월 누적 기준에서는 133.1GWh로 전년동기비 4.4% 상승. 특히 BEV 및 PHEV향 배터리 물량은 10.8% 증가하였고, 이는 중국내 HEV 판매 비중 하락, EREV 및 Premium BEV 수요 증가에 기인

배터리 타입별 판매에서 1~2월 누적, 각형의 글로벌 M/S 80.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원통형 7.9%, 파우치 타입 11.7%로 국내 배터리사들의 각형 진출이 시급한 상황임을 재확인. 상위 10개사 기준 1~2월 누적 수치에서 LGES M/S 8.7%, SK on 3.8%, SDI 2.5%로 하락

양극재 소비에서 LFP가 1~2월 누적 기준 57.2%로 M/S 1위를 유지했고, High Ni(니켈 80% 이상) 22.2%, 기타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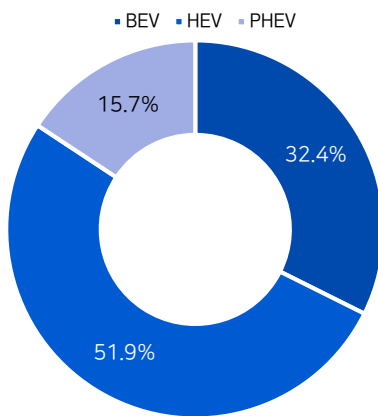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2월 EV향 배터리 data 시사점은 1) 중국 성장률이 예상을 대폭 하회하며 글로벌 전체 xEV 판매량 저조, 2) 이에 따라 배터리 수요 성장률이 2월 YoY -5.1%, 1~2월 +4.4%로 '21~'22 70%대, '23~25년 30%대에서 '26년 1~2월 기준에서 대폭 둔화되었음을 확인. 글로벌 전체 이차전지 수요의 가장 높은 비중이 여전히 EV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V향 배터리 수요의 10% 미만 성장률, 그리로 이를 주로 견인한 예상밖 요인인 중국 NEV 취득세 환급 정책 약화가 향후 사라짐을 감안한다면, EV향 배터리 수요 성장률은 당초 전망한 수준보다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

그림1 글로벌 Top 10 배터리 1~2 월 누적 기준 판매량 전년동기 대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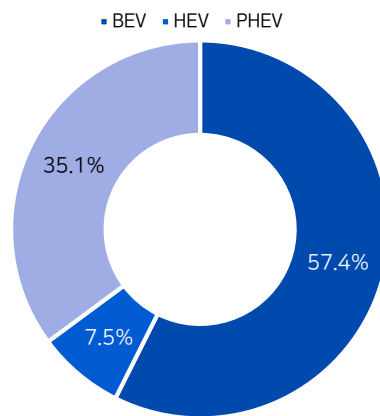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유럽 전기차 타입별 비중(BEV MoM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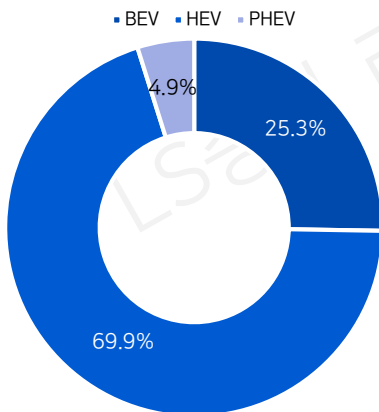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중국 전기차 타입별 비중(BEV MoM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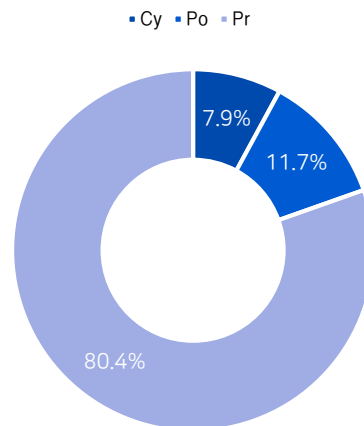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전기차 판매량 타입별 비중(미국, '25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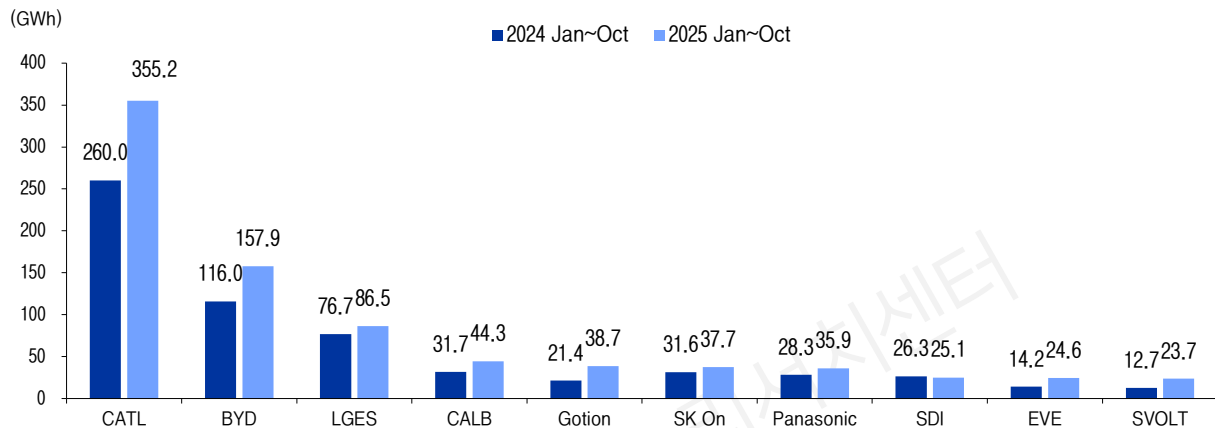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배터리 타입별 글로벌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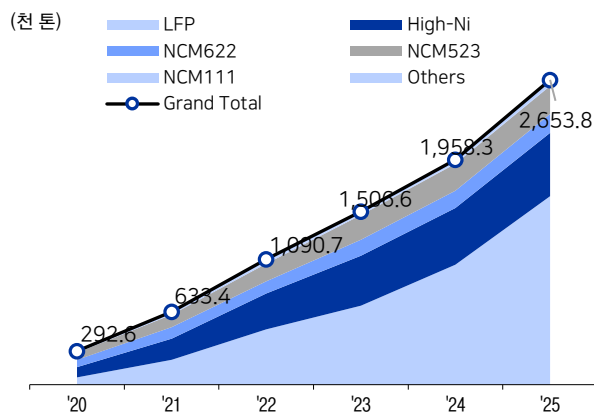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글로벌 EV 배터리 Top 10 공급량('25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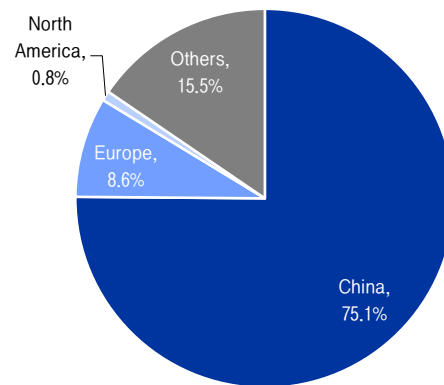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양극재 소비 추세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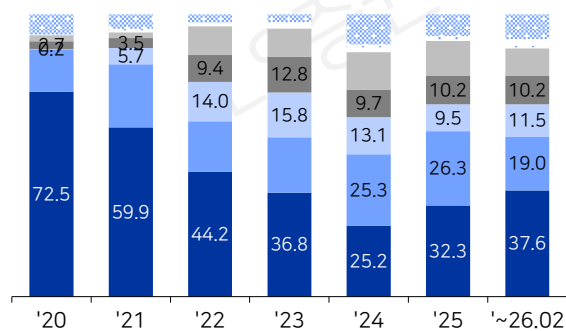
그림8 지역별 LFP 사용 비중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북미 Top 6 M/S 1~2 월 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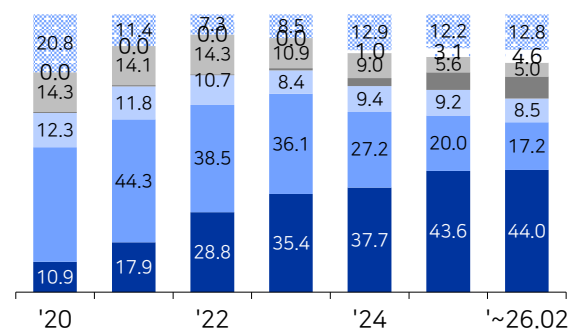
Panasonic LGES CATL SDI SK On PPES Others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유럽 Top 6 M/S 1~2 월 87.2%

CATL LGES SK On BYD SDI SVOLT Others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경희).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89.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10.7%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4. 01 ~ 2026. 0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